

제40호 · 2017년 7월 5일

항만 · 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 · 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



한국해양수산기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

물류이슈

극동지역 투자 유치 결과 및 향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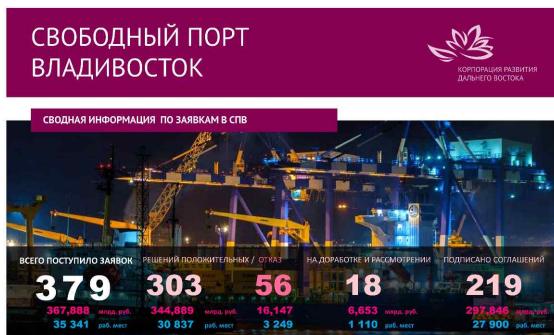
- 2015년 이후 러시아 정부의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투자 정책으로 인해 극동지역의 투자유치가 활발해지고 있음
- 선도개발구역은 총 17곳으로 지금까지 293건의 입주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136 건에 대해 계약이 체결됨
 - 체결된 계약의 투자금액은 약 4,862억 6,100만 루블이며 약 26,467명의 일자리가 창출됨¹⁾

선도개발구역 투자현황



자료: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, 'TOP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: заявки, инвестиции, рабочие места (инфографика)',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mediagallery/5666/>(검색일: 2017년 6월 27일)

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투자현황



자료 :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, 'Мнение: TOP позволяют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бы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',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5493/>(검색일: 2017년 6월 28일)

-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총 20곳으로 지금까지 379건의 입주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219건에 대해 계약이 체결됨
 - 체결된 계약의 투자금액은 약 2,978억 4,600만 루블이며 약 27,9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됨²⁾

1)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, 'TOP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: заявки, инвестиции, рабочие места (инфографика)',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mediagallery/5666/>(검색일: 2017년 6월 27일)

2)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, '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: заявки, инвестиции, рабочие места (инфографика)',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mediagallery/5667/>(검색일: 2017년 6월 27일)



-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극동지역 투자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발전 및 개발에 대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음
 - 러시아 정부는 선도개발구역 등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현대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투자매력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극동지역의 새로운 경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함
 - 또한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투자 정책은 성공적인 투자 프로젝트로서,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여 극동지역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³⁾
 - 2017년 5월 극동개발부는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극동지역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
 - 발표된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주요 10가지 결과와 2017년까지의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10가지 계획이 담겨 있음

극동개발 주요 결과(2016년부터 2017년 4월까지)

1.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투자자 인프라 지원과 극동개발금융펀드 지원 등을 통해 극동지역에 약 1조 6,700억 루블의 신규 투자를 유치함
 - 투자 프로젝트 수는 약 117개에서 약 605개로 늘어났으며 일자리 수도 약 40명에서 약 100명으로 증가함
2.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31개 신규업체가 입주하였으며 약 140억 루블이 투자되었고 약 14,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됨
3.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서 입주한 기업들은 3년 동안 약 5,000만 루블을, 5년 동안 약 5억 루블의 세금 혜택을 받음
4. 극동지역 중소기업 226개 업체가 연평균 11.1%의 우대 대출을 받았으며 총 금액은 약 27억 루블임
5. 극동지역 내 무료 토지 배분을 시작함(이하 극동 �ект아르)

3)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, 'Мнение: ТОР позволяют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бы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',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5493/> (검색일: 2017년 6월 28일)



- 극동 협회는 2016년 6월 1일 러시아 연방법에 의해 발효되었으며 러시아 전역에서 86,000개 이상의 신청서가 제출 되었으며 14,000명 이상이 토지를 배분 받음
 - 또한 극동 협회 우대 대출을 받을 수 있음
 - 대출금은 3,000 루블부터 60만 루블까지 가능하며 5년 기간 동안 8.5%~10.5%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함
6. 극동인적자원개발공사에 의해 5,335명이 극동지역 기업에 고용됨
- 또한 168개 업체에서는 극동인적자원개발공사의 지원으로 무료로 노동인력을 지원받음
7. 27개의 국가 발전 프로그램 중 20개의 프로그램에 극동지역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 섹션을 구축함
-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약 6,422억 루블의 예산이 배정됨
- 또한 5개의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국영기업 참여로 약 6,916억 루블이 극동지역 개발 및 발전에 투입될 예정임
8. '콤소몰스크-나-아무레 종합개발 계획'이 승인됨
- 2016년 종합적인 건설계획과 더불어 17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임
- 이 중 5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예산 5억 루블을 포함하여 약 16억 루블의 예산이 투입됨
9. 쿠릴 열도 사회 인프라 및 투자 인프라 개발과 투자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약 37억 루블 예산 및 민간 자본이 투자됨
10. 극동지역 발전 및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함
 - 극동 산업 및 소비자를 위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전기 요금을 인하함
 -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에 한하여 8일 동안 외국인에게 전자비자를 제공함
 -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프리모리예 변강, 하바롭스크 변강, 캄차트카 변강, 사할린주, 추코트카 자치구에 지정함
 - 극동항만으로 입항하는 외국 크루즈 선박에 대해 절차를 단순화함
 -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어선 및 수산물 가공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자들에게 어획 및 생산 퀘터를 제공함



2017년 극동지역 우선 개발 목표

1. 극동개발공사, 극동개발펀드, 극동인적자원개발공사 등을 통해 약 1조 6,000억 루블을 극동지역에 추가로 투자하고자 함
2. 2017년 말까지 약 85개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며 이는 1,110억 루블 이상의 투자 규모 및 약 5,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(누적 금액 및 누적 일자리 수)
3. 2020년 및 2025년까지 극동지역 인구수준을 각각 약 620만 명, 약 650만 명까지 안정화하기 위해 극동 인구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하고자 함
4. 러시아 전역으로부터 약 12만 5,000개의 신청서를 받고자 하며 신청된 신청서의 약 90%를 승인하고자 함
5. 극동 헥타르에 입주자들의 성공적인 토지 개발을 위해 약 30억 루블까지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자 함
6. 27개의 모든 국가 발전 프로그램에 극동지역 우선 순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반영하고자 함
7. '콤소몰스크-나-아무레 종합개발 계획' 이행을 촉진시키고자 하며 '스바보드니 종합 개발 계획'을 승인하고자 함
8. 극동 산업을 위해 전기요금을 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자 함
9.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서 전자비자를 받는 외국인들을 위해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
10. 이 외 다음과 같은 연방 법안을 제정하고자 함
 - 극동에서 항공 서비스 실현을 위한 0%의 세율 제공 법안
 -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들의 세무 조사를 위한 법안
 -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 및 주요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소득세 등 세금 우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
 -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들의 새로운 토지 배분 법안
 - 장기적으로 우대조건을 제공받는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들과 국가간의 제품구매, 서비스 제공 등의 계약 체결을 통한 법적인 권리 확보 법안



-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을 위한 특별 조세 제도 도입 법안
- 세금을 통해 인프라 건설 투자자 보상금 지불 법안
-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외국인 의료기관 의료 선도 활동을 위한 법안

시사점

- 극동개발부에서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그 동안의 극동지역 개발 및 투자에 대한 결과물을 제시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줌
- 또한 가까운 미래에 대해 제시한 목표를 통해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에 대한 계획을 알 수 있으며, '스바보드니 종합개발 계획'⁴⁾,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을 위한 조세 제도 도입⁵⁾ 등에 대한 기사를 통해 보고서에서 제시된 '우선 개발 목표'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
- 이를 통해 앞으로 극동지역에서의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측이 가능할 것임

자료: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, 'ОБ ИТОГ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2016 ГОДУ И ЗАДАЧАХ НА 2017 ГОД', Май 2017 г., сс. 2-5

김은미 리포터
051-797-4784, usea1004@gmail.com

4)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, '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внесло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комплекс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Свободного',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5648/>(검색일: 2017년 6월 19일)

5)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, '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предложило ввести единый налог для резидентов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',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5720/>(검색일: 2017년 6월 27일)



물류동향

파그라니치니 국경 통상구 건설 재개

- 러·중 국제운송회랑 프로젝트 '프리모리예(Primorye) I, II' 중 '프리모리예(Primorye) I'의 중-러 국경 구역인 파그라니치니 국경 통상구 건설 공사가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재개됨
- 헤이룽장(黑龍江)성 정부는 6월 15일 하얼빈에서 개최된 제4차 중-러 박람회에서 쑐이펀허(綏芬河)시와 러연방국경건설청 프로젝트건설 및 사용관리국, 연해주국경투자국과 함께 진행한 회담에서 중국의 수이펀허 국경 통상구와 마주하고 있는 파그라니치니 국경 통상구 건설 재개와 중-러 국경주변지역 자가용 여행을 주요 의제로 논의함
 - 파그라니치니 국경 통상구 재건 계획은 2012년 APEC 회담 전에 완성되었으나 2013년 초 관련 책임부처의 소송 문제로 인해 연기되었고, 2016년 10월 1차 입찰을 통해 2개 기업이 참여했으나 유찰되어 다시 연기되었다가 올해 5월 착공 계획을 밝힘
- 파그라니치니 검문소 내 신규 국경 통상구가 완공되면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500만 톤, 연간 여행객은 500만 명으로 현행 대비 통관능력이 10배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
 - 수이펀허시는 또한 러시아 연해주 국경 주변 지역의 8인승 이하 승용차 국경여행을 이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함
 - 양국은 국경 통상구정책을 잘 활용하여 경제무역의 발전과 관광이 동시에 촉진되기를 기대함

자료: <http://www.suifenh.gov.cn/contents/26/70973.html> (검색일: 2017년 6월 29일)

공영덕 연구원
051-797-4778, ydkong6053@kmi.re.kr